

'강원FC가 낳은 스타' 양민혁, 17일 강원 홈 경기 찾는다

등록 2026.05.14 16:50:03



[서울=뉴시스]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양민혁. (사진=강원FC 제공)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김진엽 기자 =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'미래' 양민혁(20·코번트리 시티)이 올해도 강릉종합운동장을 찾는다.

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는 "오는 17일 오후 7시 울산 HD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5라운드 홈 경기에 양민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해 팬들과 추억을 만들 예정"이라고 14일 밝혔다.

강원에 따르면 양민혁은 경기 전 하이파이브 행사와 팬사인회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난다.

팬사인회는 양민혁을 상징하는 등번호 47에 맞춰 현장에서 선착순 47팀을 모집한다.

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단위 팬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강원FC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.

하프타임에는 양민혁 환영 행사가 진행된다.

양민혁은 2024시즌 강원 돌풍을 이끈 주역이다.

준프로 신분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양민혁은 리그 38경기 12골 6도움을 기록,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역대 최초로 4

회 연속 수상했다.

시즌 종료 후에는 K리그1 베스트11과 영플레이어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역대급 데뷔 시즌을 완성했다.

이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(EPL) 토트넘홋스퍼로 이적했고, 2025~2026시즌 후반기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(2부 리그) 코번트리 시티 소속으로 활약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